

허술한 문화재 방재 시스템



생 불나면 속수무책

난방용 등유 경유로 속여 팔아



‘방재 매뉴얼’ 없이 소화기 의존

화재 감지기 미비 초기 진화 어려워

광주·전남지역 각종 목조 문화재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보급 목조 문화재의 경우 화재 방재 설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고의적인 방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1호 승례문이 불에 타 완전 소실된 11일 오전 영암군 군서면 월출산 자락에 자리한 도감사. 국보 제50호인 해탈문을 보유한 사찰이다. 하지만, 도감사뿐 아니라 국보인 해탈문에 대한 화재 대비책은 허술했다.

화재감지기 등 초기 경보시설이 전무했고, 해탈문 주변에 있는 소화전 2대와 일반 소화기(3.3kg) 1대가 고작이었다. 이 중 소화전 1대는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최근 소방훈련 및 내부 점검을 하지 않은 듯 거미줄이 얽혀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대웅전(보물 1311호), 내부에 소형 CCTV 4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자동화재 감지기는 없었다. 옥외 소화전 1개와 수동식 분말 소화기(3.3kg) 2대는 대웅전에서 직선거리로 10m



순천시 선암사 스님들이 11일 오후 보물 1311호인 선암사 대웅전 주변에서 옥외소화전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웅장한 대웅전의 모습과는 달리 소화설비는 초라했다.

선암사가 갖추고 있는 소방장비는 소화기 3대와 옥외소화전 7개, 소방차(최대용량 1천350ℓ) 1대가 전부였다. 사찰과 가장 가까운 승주 119 안전센터는 거리가 8km 정도 떨어져 소방차가 출동하더라도 10분 이상이 소요돼 화재 발생 초기 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국보 제13호인 무위사 극락전 CCTV 4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자동화재 감지기는 없었다. 옥외 소화전 1개와 수동식 분말 소화기(3.3kg) 2대는 대웅전에서 직선거리로 10m

가 배치돼 있었다. 85t짜리 물탱크와 화재 감지기, CCTV 2대 등이 설치돼 외부인 침입 및 화재에 대비한 준비가 갖춰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내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은 전무해 고의적인 방화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보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목조 문화재는 총 303동, 이들 문화재 대부분은 소방차가 접근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많아 소화전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보물 1307호인 고흥 능가사 대웅전 등 전체 목조문화재 303동 가운데 34.7%인 105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돼 있

지 않은 실정이다.

화재 확산을 늦추기 위한 방연재 처리도 195동(56개소)에만 돼있으며, 특히 국가 지정 문화재 6동도 방연재 처리가 되지 않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채희중·박진표·이종행기자 chae@

광주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7곳 적발

지난해 광주지역 주유소 100곳 가운데 2곳이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관내 유류 취급점 351곳을 대상으로 석유 품질 조사를 벌여 불량 제품을 판매한 점포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품질 조사는 주유소 300곳을 비롯해 LPG 충전소 40곳, 석유 도매매리점 11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주유소 6곳과 부생연료유 판매소 1곳이 불량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개 주유소는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

고 있었으며 나머지 2개 주유소는 다른 물질과 혼합한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벌인 조사에서도 주유소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특히 한 주유소는 8당 1천400원대인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로 사용되는 8당 900원대의 등유를 화물차에 디젤엔진 연료로 팔다가 적발됐다.

시는 일부 주유소가 고유가를 틈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적격 석유 제품이나 유사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서류 미비 통보않고 불합격 처리 부당”

“편입 수험생은 합격” 판결

한때 편입 수험생이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대학이 통보하지 않은 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1일 이모(42)씨가 학교법인 우석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석대의 2007학년도 한의학과 편입학시험 합격자임을 확인하고, 이씨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토플 성적표는 100점이

배정된 영어과목의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합격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데도 법원 측은 전화로 이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이씨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신의칙상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우석대 한의학과 편입시험에 응시했지만 토플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영어점수가 0점으로 처리돼 불합격했다. 당시 킷트라인은 300점 만점에 236점이었고 토플 성적 합산했을 경우 이씨는 259점을 얻을 수 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내 식당 내준다” 2억 골격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회사 구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직장예비군 중대장 탁모(56·예비역 소령)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7월 30일 전직 교사 출신인 김모(66)씨에게 접근해 광주시 광산구 모 전자회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탁씨는 2006년 말까지 이 회사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했으며, 김씨에게 “회사 노조위원장직이 영향력이 있는 만큼 노조위원장을 통해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사 노조 간부들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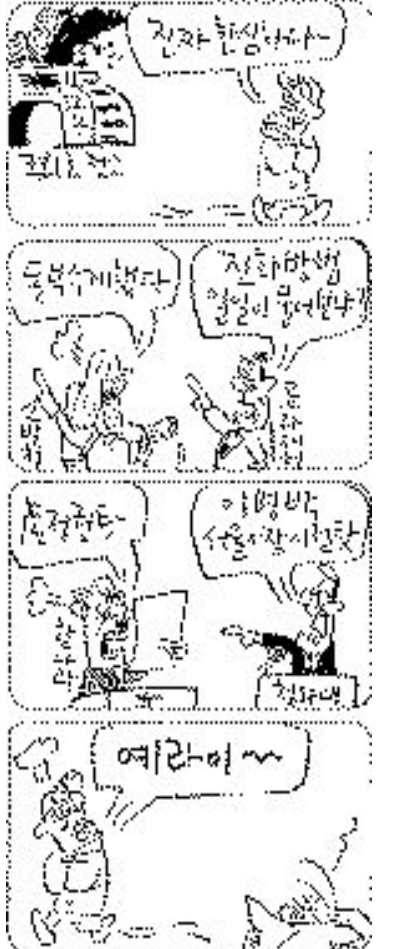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설 물가 저해 사범 25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물가저해사범 특별단속(1월21일~2월10일)을 벌인 결과 최근 2년간 닭과 오리를 밀도살한 뒤 재래시장에 공급한 김모(51)씨 등 25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9명 ▲원산지 미표시 6명 ▲상표권 침해 3명 ▲축산물 부정도축 7명 등이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전문렌탈비노기과... 발기 불능수술... 상담 전화 (062) 233-5119



다중의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력 및 상담관행

차량 절도 10대 광란의 도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10대 한 시간 동안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공포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걸려

11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모 고교를 중퇴한 김모(16·보성군)군은 10일 낮 12시께 순천시 낙안면에서 유모(36)씨 소유의 썬더볼트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였다

추격전을 벌이던 김군은 순천시 낙안면 뇌운리에서 마주 오던 썬더볼트 승용차를 들이 받고 멈춰섰지만 차량을 버리고 400여m를 도주하다 공포탄 2발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결국 걸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승용차를 훔쳤는데 추격하는 경찰을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차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 /보성=인규기자@

광주·전남 목조 문화재 325점

도난·화재 빈번...긴급 소방안전 점검 실시

광주·전남지역에는 모두 325점의 목조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정문화재 1천5점 중 목조문화재는 303점으로 국보급 5점, 보물 13점 등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에는 국보나 보물급 목조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물 이하 지정문화재 128점 중 22점의 목조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다.

동구 허백련 출생지, 서구 병천사, 남구 광주향교, 광산구 용어(박용철) 생가 등이 대표적인 목조 문화재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선 도난과 화재 등 문화재를 둘러싼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2006년 2월 전남도 유형문화재 216호인 장성군 화룡면 필암서원 하서유목부족도관 3점이 도난당했으며, 같은 해 7월 구례 화엄

사에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없어지는 등 지난 5년간 13건의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본촌동 D 사찰에서 대웅전 한 채가 불에 탔으며, 같은 해 시 지정 문화재인 광주 서구 금호동 B사찰에서도 불이 났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승례문 화재 직후인 11일부터 관내 목조문화재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13일까지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국보, 보물), Site Number, and Cultural Heritage Name. Lists 13 sites across the region.

Large advertisement for (주) 조이트래블 (Jooyou Travel)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table of package prices and a large promotional banner.